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

누가복음 4:18-19

Christmas 란 'Christ' 와 'Mass' 미사 즉 예배가 합성된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뉴스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일 것입니다. 이것을 '성육신' 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 여년 전,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유대 땅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약 2000 년전, 이스라엘의 그 작은 마을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기에 온 인류가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렇게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일까요?

첫째, 주님께서 오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눅 4:18-19)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를 해방시키기 위함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가난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동산을 만드셨을 때 모든 것이 풍성하도록 하셨으며 오히려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 범죄함으로 인해 가난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창 3:17-18)

그런데, 가난에도 내적인 가난과 외적인 가난이 있습니다.

내적인 가난은, 속사람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 우리의 영이 죽어버리고, 우리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공핍함과 가난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내적인 가난을 경험하는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명확한 목표와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가난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 에덴동산에서 쫓아 내시자, 그 형벌로 땅은 저주를 받게 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합니다. 죄로 인해 환경의 가난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인간의 범죄로 인해 맞이하게 된 내적인 가난과 외적인 가난을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는 그리스도의 예수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 (갈 3:1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고후 8:9)

둘째, 포로된 자에게서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려 오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무엇인가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애, 어떤 사람은 돈이나 세속적 즐거움에 빠져 살기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았기에, 하나님을 떠난 삶은 죄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롬 5:12)

마귀는 죄라는 끈을 가지고 우리를 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그저 죄로 보아서는 안되며, 그 죄의 배후에 있는 마귀의 계획까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 배후에 숨어 있는 마귀의 계획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그 시기와 미움의 마음 뒤에 숨어 있는 마귀의 속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영안과 육안 두개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영안이 열리고 영의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영의 눈이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온 것이라” (요일 2:16)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영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넷째, 주님께서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억압하고 누릅니다. 그래서 심적으로 불안과 좌절, 절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의 그 모든 억압과 눌림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나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께는 마귀를 억압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구원시키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대속의 제물로 아들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얼마나 희생하느냐에 따라 그 사랑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조금 사랑하면 조금밖에 희생할 수 없지만, 많이 사랑한다면 많은 부분을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 주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전부를 주셨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는 워싱턴성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눔의 시간

1. 크리스마스(Christmas)라는 단어의 유래가 어떻게 될까요? 어떤 단어들이 합성하여 이루어 지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보고, 그 의미에 대해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크리스마스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이유를 4 가지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함께 나누어 봅시다.
3. 이제 새로운 한해가 시작됩니다. 2019년에는 내가 신앙적으로 어떤 열매들을 맺고 싶은지, 또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하고 싶은지 이야기해 보고, 가정별로 기도제목을 간단히 나누고 함께 기도한 후 목자의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